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어린이 도서관을 자연환경 교육장으로 리모델링	싱가포르
문화·관광	4	“도쿄를 세계 최고 문화도시로” 문화비전 발표	도쿄
산업·경제	7	‘미래의 성장동력’ 녹색산업 진흥비전 수립	교토
사회·복지	10	호주 국내 최초로 입양연구소 만든다	뉴사우스웨일즈
환경·안전	14	지역 기반 재난대응팀 프로그램 지속 운영	달라스
도시교통	16	승용차 뺀 모든 교통수단 통행 다리 9월 개통	포틀랜드
도시계획·주택	18	중고 화물컨테이너 411개로 조립한 기숙사단지 오픈	베를린
	20	민간 임대주택 질 향상 인증제도 시행	런던
	22	자녀양육 저소득가정 주택마련 지원사업 시행	베를린
	24	카이로 동쪽에 ‘인구 500만 수용’ 신도시 건설	카이로

어린이 도서관을 자연환경 교육장으로 리모델링

내부공간 구조, 마감재, 가구 등 친환경 소재·디자인 적용

싱가포르市 / 행정정·교육

- 싱가포르 국가도서관관리국(National Library Board)은 중앙공공도서관 내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을 친환경적인 디자인과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2013년 5월 재개관함.



어린이 도서관 내부 모습

천장·벽 칸막이 재활용소재 사용...접착제 사용은 최소화

- 어린이 도서관 전체에 친환경적인 디자인 요소를 다양하게 적용함. 리모델링을 담당 한 민간건설사 City Development Limited는 뜻을 같이하는 11개의 기업과 협력하여 어린이 도서관 내부공간의 구조·마감재료·가구 등을 친환경적으로 구성함.
 - 예를 들면, Phillips Lighting社는 에너지 사용을 47%나 절약할 수 있는 LED 조명기를 공급하였고, 카펫 제작 업체 Interface Heuga Singapore社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재활용 소재 카펫을 바닥에 설치함.
 - 기존의 책꽂이에는 나무의 모습을 본떠서 표면에 친환경 소재를 덧입히고, 새로 설치한 책꽂이에는 합판이나 섬유판 소재를 사용함. 천장과 벽 칸막이는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였고,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나 접착제의 사용을 최소화함.



새롭게 디자인된 책꽂이



바닥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공간

- 도서관 중앙에는 느티나무를 형상화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였는데, 마치 높게 자란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서 책을 읽는 분위기를 연출하여 어린이에게 큰 호응을 얻음.
 - 이 느티나무 구조물의 나뭇잎은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수거한 3,000여 개의 플라스틱 통을 재활용하여 제작함. 이 도서관은 이 나무 구조물에서 착안하여 ‘마이 트리 하우스(My Tree House)’로 명명함.

중앙엔 느티나무 형상화 인공구조물 설치 ‘어린이에 큰 인기’

- 어린이들이 자연환경을 탐구하고 체험해보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흥미로운 체험 장소를 마련함.
 - 나무의 그루터기 모양을 본떠 만든 ‘날씨 그루터기(The Weather Stump)’는 싱가포르 기상청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날씨 정보를 나이트의 형태로 읽을 수 있음. 이는 인간의 행위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형상화한 것임.



날씨 그루터기



지식의 나무

- 그림자놀이를 통해 자연보호와 에너지 절약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지식의 나무(The Knowledge Tree)’도 설치됨. 화면에 나타나는 문제를 그림자를 이용해 맞히면 나무가 자라고 틀리면 나무가 시들어 버림.

매주 자연환경 보호 관련 이야기수업 진행...방학 땐 재활용재료로 미술수업

- 국가도서관관리국은 환경국·공원국과 협력하여 자연환경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주 이야기(storytelling) 수업을 진행하고, 방학 때는 재활용 재료로 미술 수업을 진행하며, 자연공원·정원 등에서 가이드 투어를 실시함.
-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어린이들은 전자자료 부스(e-Book kiosk)에서 자연환경과 관련된 전자도서를 읽거나 관련 게임을 할 수 있음.
- 이 도서관은 현재 총 4만 5,000여 권의 어린이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0%는 동물·식물·자연환경·물·날씨·재활용·기후변화 등의 주제임.
- 각종 워크숍·이야기 수업·미술 수업 등에 참가하거나 책을 대여하는 어린이들은 패스포트에 도장을 받을 수 있는데, 패스포트를 다 채우면 ‘지구의 영웅(Earth Heroes)’이라는 명찰을 받을 수 있음. 이는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됨.



e-Kiosk에서 전자도서를 읽는 어린이들



패스포트

<https://www.nccs.gov.sg/climatechallenge/issue06/ask-dr-green.html>

<http://www.littledayout.com/article/my-tree-house-worlds-first-green-library-for-kids.html>

문화·관광

“도쿄를 세계 최고 문화도시로” 문화비전 발표

일본 도쿄都 / 문화·관광

- 도쿄都는 ‘스포츠를 문화와 교육과 융합’이라는 올림픽 헌장의 원칙에 따라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문화의 발전에 큰 기회로 여기고 있음. 이에 따라 시는 문화 정책이나 사업을 대폭 강화해 오고 있으며,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능가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2015년 3월 31일 도쿄도 생활문화국은 도쿄의 문화적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문화 비전을 발표하고, 올림픽을 계기로 하는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그 전략을 제시함.

2020년 도쿄올림픽 계기 문화인프라 구축 등 8대 전략 마련

- 도쿄 문화 비전은 크게 5가지 이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도쿄 예술 문화의 다양성을 발산
 - 성장 핵심으로 예술 문화를 상정
 - 올림픽을 계기로 유·무형 문화유산을 창출
 - 도쿄를 무대로 모든 사람들의 교류와 세계적 예술가들의 창조 활동을 촉진하고, 예술 문화의 힘을 세계 평화 실현과 연결
 - 많은 사람의 결집력과 예술 문화의 힘을 통해 새로운 도쿄를 만들어가고, 이를 전국에 확대하여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감.
- 도쿄 문화 비전의 8대 전략과 10가지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도쿄 문화 비전의 8대 전략

8대 전략	전략의 방향성
전통과 현대가 공존·융합하는 도쿄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세계로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과 현대가 공존·융합하는 도쿄의 예술 문화의 매력을 더욱 세계에 전파 - 도쿄의 독자성의 원천인 전통 문화를 차세대에 계승·보존·계승·발전 - 변모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의 가치를 재검토하고 그 잠재력을 재조명
다채로운 문화 거점의 매력 향상에 따라 예술 문화 도시 도쿄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가진 각각의 지역의 예술 문화를 위한 문화 거점을 만들고, 각 지역의 매력을 향상 - 세계의 여러 사람이 도쿄 예술 문화의 매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징을 가진 각각의 거점을 돋보이게 하여, 전체적으로 도쿄도의 매력을 향상시킴.
모든 사람이 예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 기반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이 예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구조를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성숙한 문화 도시를 구축 - 문화 시설에서 어린이나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 여러 사람이 어려움 없이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 - 모든 시민이 창조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주체적인 활동을 권장
신진 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재를 국내외에서 발굴·육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면에서 도쿄의 활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재능과 인재를 발굴·육성을 국제적인 관점으로 전개 - 국내외의 재능 있는 예술가나 디자이너 등을 적극 받아들여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문화 도시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 - 재능있는 예술가의 혁신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그 표현 활동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지원
도시 외교를 기축으로 예술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국제적 경쟁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으로 역량 있는 이벤트 등을 유치하고, 아시아의 예술 문화 시장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며, 문화 거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 - 해외 주요 문화 기관·조직과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다문화 간 상호 이해의 지속적인 촉진을 도모하여 문화적 도시 외교를 추진
교육·복지·지역 진흥 등 사회와 도시의 과제에 예술 문화의 힘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문화의 힘을 활용해 교육·복지·의료·지역 진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과제 해결에 공헌 - NPO나 기업 등 다양한 조직과 협력·연계 관계를 구축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선구적이고 실험적인 대응을 적극 지원
첨단 기술과 예술 문화의 융합에 의한 창조 산업을 발전시켜 변혁을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를 견인하는 혁신적인 기술에 의한 새로운 예술 문화의 창조·유통·감상·경험의 가능성을 추구 - 재능 있는 다양한 창조적 인재와 글로벌 기업 간의 새로운 만남을 추진하여, 도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창조 산업의 진흥을 촉진
도쿄가 갖고 있는 예술 문화의 힘으로 도시력을 끌어내 사상 최고의 문화 프로그램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올림픽을 중심으로 도시 자체를 무대로 한 문화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세계에 도쿄의 매력을 전파 - 올림픽 개최로 창출되는 유·무형의 유산을 연계하고 차세대에 계승하여, 세계 제일의 문화 도시 도쿄를 실현

도쿄 문화 비전의 10대 주요 프로젝트

10대 주요 프로젝트	세부내용
대규모 예술 축제를 전개, 세계에 홍보	전통 예능·연극·미술 등 모든 분야의 예술을 집결시킨 도시형 종합 예술제를 구축함. 여러 문화 시설뿐만 아니라 소극장이나 공공 공간 등 도쿄의 다양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연출하여 예술 분야의 벽을 넘은 축제를 구축
어린이와 외국인을 위한 전통 체험에 의한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신	다양한 학교와 연계하여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일본 전통 가요·일본 음악·만담·다도 등 일본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나 외국 관광객이 짧은 시간에 감상·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전개
다채로운 예술 문화 거점의 매력 향상	우에노·이케부쿠로·시부야·롯본기·도쿄 역 주변·미나토·시나가와 개발지역 등의 매력을 향상하고 세계에 홍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술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가칭)을 전개	도립 문화 시설을 비롯하여 아동관이나 공민관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의 교류나 다채로운 예술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수도권 예술 문화 시설 네트워크(가칭)'의 추진	우에노 지역에서 예술 문화 시설의 연계에 의해 공통 입장권 시스템을 도입하고, 야간 관광객 유치수의 확대를 위해 공동 이벤트의 실시를 진행
장애인 아트에 대한 지원이나 장애인의 감상·참여를 촉진하는 활동의 추진	도쿄도 현대 미술관에서 문화 예술의 장을 설치하고 장애인의 예술 창조 활동이나 감상·참여를 촉구하는 NPO 등의 활동을 지원
젊은 등용문으로 신인상 등의 창설 등 젊은 예술가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신인상 등을 창설하거나 재능 있는 젊은 인재의 적극적인 발굴 및 해외로의 진출 지원	장학금 등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인재를 육성
도시 외교의 중심축으로 예술 문화를 규정한 도시 간 교류의 확충	서양의 각 도시와 현대 미술 무대 예술 등에 의한 교류를 확충하고 아시아 도시 박물관 등과의 문화 교류 등을 촉진
예술 문화의 힘을 활용한 토호쿠 재해지역 지원이나 전국의 마을 만들기 지원	지역의 깊이를 창출하는 예술가와 NPO 등의 활동을 전국으로 전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에 전개되는 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국내외로 전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도쿄 캐러밴(가칭)'과 대규모 '장애인 아트 프로그램' 등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의 일본 문화 소개 및 홍보와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의 정비 등을 전개

<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5/03/70p3v500.htm>

<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5/03/DATA/70p3v500.pdf>

산업·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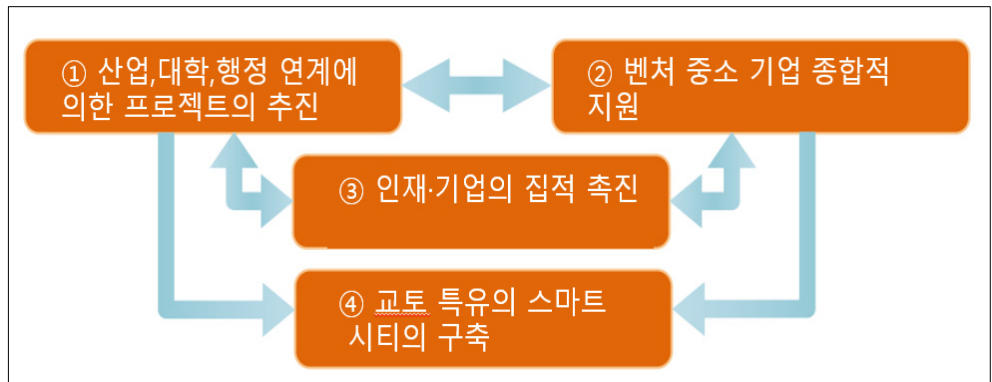
‘미래의 성장동력’ 녹색산업 진흥비전 수립

일본 교토市 / 산업·경제

-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전력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에너지 자원의 확보가 중요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교토市는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구축하고, 동시에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토市 녹색 산업 진흥 비전’을 수립함.

안정된 일자리 창출하고 환경·에너지문제 해결에 기여

- 이번 비전은 교토의 강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향후 성장 분야로 기대되고 있는 녹색 산업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대응 실적을 감안한 여러 시책을 체계화하고 향후 노력해야 할 시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책정하였음.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교토 경제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벤처 중소기업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향후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녹색 산업 분야에서 교토 경제에 활력을 주는 안정된 고용을 창출하도록 유도
 - 대학의 발전,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
 - 녹색 산업의 발전과 매력적인 상품·시스템 제공으로 시민들의 생활양식 변화, 편리성 향상, 주거 환경의 보전, 의료·임업·관광 등 다른 산업 발전에도 기여
 - 벤처 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이룬 다양한 성과를 통해 산업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어, 교토 경제의 꾸준한 성장과 교토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살기 좋은 사회의 실현을 도모



시책 방향성 개념도

- 산업·대학·행정 간 연계 하에서 프로젝트 추진
 -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대학·행정의 자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기술 교류를 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
 - 녹색 산업의 진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 성장 전략에 연동하는 경쟁적 자금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 벤처 중소기업의 종합적 지원
 - 교토 고도 기술 연구소(ASTEM)의 지원 : 연구 개발 보조, 사업 가능성 조사 사업, 인큐베이션 시설 입주·임대료 보조, 전시회 출전 지원(수도권 해외), 벤처 구매 제품 승인 제도 등을 지원
 - 교토 산업 기술 연구소의 기술 지원 : 기존 기술의 고도화 지원 등 중소기업 등의 요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구 개발, 시험·분석, 설비 기기의 이용 등을 지원
 - 교토 산업 예코·에너지 추진 기구의 일체적인 지원

- 인재·기업의 집적 촉진

- 산업 진흥 거점의 유효 활용과 연계에 의한 집적 촉진 : 주요 거점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녹색 산업 진흥의 기반이 되는 인재와 기업의 고도화를 꾀하는 동시에 새로운 프로젝트 조성 및 인력·기업의 집적을 촉진
- 거점 간 연계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 : 거점 간 네트워크 강화에 따른 거점 자체의 활성화 등을 도모
- 산업 진흥 거점에서 인재 육성 사업 등을 활용 : 녹색 산업의 진흥에서 연구자와 코디네이터의 인재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추진하여 진흥을 위한 기반을 다짐

- 교토 특유의 스마트 시티 구축

-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안심·안전, 낭비 없는 스마트한 사회 시스템, 매력 있는 도시를 정비
- 벤처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 선진 시스템을 교토 지역에서 실증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사회 경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스마트 시티 교토’의 구축 및 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기존 시스템의 변혁, 가치관 변화의 과제와 대응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

- 이 비전에 근거하여 ‘교토市 신(新) 가치 창조 비전’의 성과 지표인 ‘제조업의 시내 총생산’의 증가(매년 2.0%씩 증가)와 에너지 산업의 시장·고용 규모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도까지 프로젝트 창출 50건, 감정 위원회 A등급 인증 기업 30건, 오스카 인증 기업 30건, 기업 집적 수 50개를 목표로 함.

<http://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165875.html>

<http://www.city.kyoto.lg.jp/sankan/cmsfiles/contents/0000165/165875/gaiyou.pdf>

사회·복지

호주 국내 최초로 입양연구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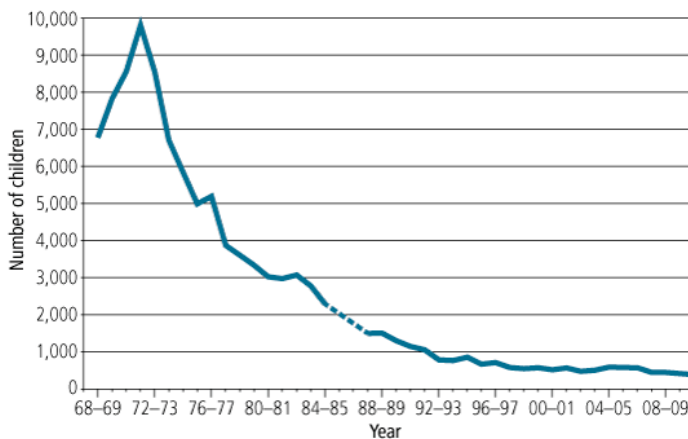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사회·복지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입양 아동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제도적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호주 국내에서 최초로 ‘입양 연구소(Institute of Adoption)’를 설립하기로 결정함.
- 주 정부는 입양 연구소 설립에 285만 호주달러(약 24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연구소는 입양 활성화를 지원할 정책과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임무를 맡게 됨.
 - 구체적으로 연구소는 공개입양(open adoption) 촉진, 입양 아동에게 장기적이고 안전한 가정 제공, 그리고 입양을 저해하는 요인 제거 등 입양을 위한 최적의 실천방안(best practice) 발굴을 목표로 운영될 계획임.
 - 입양의 활성화는 위험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조속히 새로운 가정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복지재정 지출을 감소시킬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주 정부는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외 보호(out-of-home care)’를 제공하고 있음. ‘가정 외 보호’는 크게 세 가지로, 전문 서비스 기관에 의한 ‘거주 보호(residential care)’, ‘그룹 홈(family group home)’, ‘친척이나 위탁 가정(foster care)’으로 구분됨.
 - 절대다수는 위탁 가정(40.7%)과 친척(55.8%)에 의한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음. 이 중 2013년 현재 뉴사우스웨일즈 주에는 아동 및 청소년 17,422명이 ‘가정 외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주 정부 전체 아동과 청소년의 약 1%에 해당함. ‘가정 외 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주 정부의 가족·지역사회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는 ‘가정 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가정과 계약을 맺어 외주하고 있는데, 예산은 연간 8억 5,200만 호주달러(약 8,520억 원)에 달함.

입양 활성화 지원 정책·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 임무

- 주 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이들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에 있음. 아동 학대나 방치 등으로 원가정 복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시,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선택으로 입양을 제시함.
- 그러나 입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정 외 보호’가 주요 보호 수단으로 이용되어왔음. ‘가정 외 보호’는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음. 따라서 주 정부는 입양을 아동 보호의 최우선 대책으로 삼고, 이를 위해 아동 보호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해 왔음.



호주의 입양 추이

출처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2012), Adoptions Australia 2010~2011

- 주 정부는 입양 관련 법령을 전면 검토하여, ‘평생 안전한 가정(Safe Home for Life, 이하 평생 가정)’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도입한 바 있음. 이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최근 ‘아동 보호 법률 개정(Child Protection Legislation Amendment Act 2014)’ 사업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입양법(Adoption Act 2000)’과 ‘아동 보호법(Child Protection-Working with Children- Act 2012)’ 등의 개정이 이루어짐.

- ‘평생 가정’ 정책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음. 부모의 부양 책임성 강화,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다 장기적인 보호 제공, 아동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 확립.
- 궁극적으로 평생 가정 정책은 아동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과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 ‘입양 연구소’는 이러한 주 정부의 아동 보호 강화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임.

입양 관련 법령 손질해, ‘평생 안전한 가정’ 정책도 시행

- ‘평생 가정’ 정책은 광범위한 관련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내외부 자문을 구해 수립함. 외부 자문 과정에는 과거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 아동보호 관련 비정부 기구, 부모나 보호 제공자, 법률 전문가,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가, 다문화 자문위원, 관련 지역사회 단체 등이 대거 참여함.
- ‘평생 가정’ 정책은 입양과 관련된 제반 이슈들을 총 29가지로 정리하고, 이슈별로 향후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음. 주요 개혁 내용은 공개입양, 입양 장애 요인 제거, 양측 부모들의 양육 방식 개선과 안정적인 가정환경 제공 등으로 크게 요약될 수 있음.
 - 공개입양 :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입양된 아동에게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입양 아동에 대한 친부모의 접근을 제한하는 소위 비공개 입양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었음. 하지만 이후 비공개 입양의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하게 논의되면서 현재 공개입양이 법적·정책적으로 지지되고 있음. 공개입양은 당사자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고, 양측 부모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친부모와 입양 아동 간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2011년 현재 뉴사우스웨일즈주 내 입양의 84%는 공개입양이지만, 국제입양은 비공개 입양이 여전히 지배적임. ‘평생 가정’ 정책은 공개입양을 더욱 권장하기 위한 법적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 입양 장애요인 제거 :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더욱 빠르고 쉽게 제공하기 위해 현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입양 부모가 되는

과정을 지원하고 간소화함.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가정 복귀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당사자인 아동의 나이가 12세 이상일 경우 당사자가 입양 여부를 단독 결정(sole consent)할 수 있도록 함.

- 친부모와 입양부모의 양육능력 강화·지원 : 위험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여 ‘가정 외 보호’와 입양의 위험을 줄이고, 위험이 인정될 시 법원은 양육 능력 명령 (Parenting Capacity Orders)을 통해 부모로 하여금 양육 교육(parenting courses)이나 치료 과정(therapeutic treatments)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등의 조기 개입을 지원함. 평생 가정 정책은 원가정에서 이탈된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위계를 정함. 즉 처음에는 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가능하지 않을 시 장기 후견인 제도를 시도한 다음, 최종적으로 입양이 시도됨. 단계별로 최적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되 ‘가정 외 보호’와 입양의 결정 과정에서 원가정의 적극적인 관여를 지원함.

<https://www.nsw.gov.au/news/nsw-institute-adoption>

http://www.facs.nsw.gov.au/__data/assets/file/0018/279000/A_Safe_Home_For_Life_Consultation_Report.pdf

환경·안전

지역 기반 재난대응팀 프로그램 지속 운영

미국 달라스市 / 환경·안전

- 달라스市는 지역기반 재난대응팀 프로그램(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CERT)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시는 2007년부터 지역기반 재난대응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600명의 시민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킴. 몇 주간의 과정 동안 지역기반 재난대응팀에 참여하는 시민은 가정·직장·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난준비에 관하여 교육받음.
 - 지역기반 재난대응팀원들은 직접적인 재난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지원·사무·교통 관리·피해 평가 등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시 정부의 재난대응에 기여함.

시민 1,600명 교육훈련...시의 재난대비에 이바지

- 달라스시의 지역기반 재난대응팀은 재난관리국, 소방, 경찰, 시민 등의 협력을 도모함. 지역기반 재난대응팀은 지역주민, 지역 조직, 사업체, 종교단체 등이 초기대응을 지원하고 재난관리를 돕기 위해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기반 재난대응팀원들은 재난상황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빠른 대응을 위해 팀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정 대피소 등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함.
- 지역기반 재난대응팀원들은 재난관리 전문가나 실무자들이 초기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다음의 몇 가지 역할을 담당함.

첫째, 재난발생 시 리더 역할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배정할 수 있음.
둘째, 단순한 재난에 대응하거나 재난 상황을 진단할 수 있음.
셋째,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응급조치·사상자 등을 관리하여야 함.

- 지역기반 재난대응팀은 기초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역 내 사업체, 종교단체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 또한 지역기반 재난대응팀은 대피 관리와 교통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잠재적인 위험과 대비 상태를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음.
- 지역기반 재난대응팀에 지원하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공무원 및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수업을 이수해야 함. 각 수업은 2시간 반 동안 실무와 팀 조직(Team Building) 관련 내용으로 이루어짐.
 - 지역기반 재난대응팀 훈련 프로그램은 총 9차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1차 재난대비와 재난관리 개요	5차 수색 및 구조
2차 화재 안전	6차 팀 구성
3차 재난 의료 운용 : 부상자 분류 및 생명에 지장을 주는 부상의 치료	7차 재난 심리
4차 재난 의료 운용 : 진단, 치료 및 소독	8차 테러와 지역기반 재난대응팀
	9차 재난 대응 실습

- 마지막 수업에서는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 모의연습을 시행함. 지역기반 재난대응팀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 재난 대응을 위한 응급물품과 수료증 등을 지급함.
- 지역기반 재난대응팀을 수료한 시민은 재난대응 관련 지식 및 기술 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고 후 스트레스 관리, 재난관리 훈련, 의료 및 해독제 배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http://dallascitynewsroom.com/community/cert-volunteers-mar15.htm>

<http://www.dallascert.com/default.asp>

<http://www.dallascert.com/training.asp>

도시교통

승용차 뺀 모든 교통수단 통행 다리 9월 개통

미국 포틀랜드市 / 도시교통

- 최근 포틀랜드市는 버스, 자전거, 보행자, 경량전철 등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이 이용할 수 있는 1,720피트(약 524m) 길이의 툴리컴 크로싱(Tilikum Crossing) 다리를 2015년 9월 개통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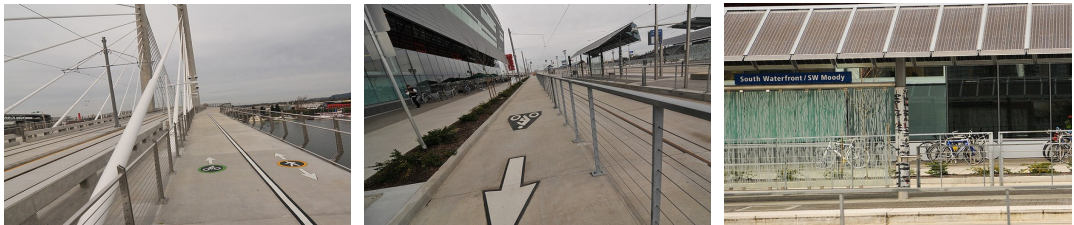


개통을 앞둔 툴리컴 크로싱

장애인 보행자도 이용하도록 경사도는 최대 5% 미만으로

- 현재 이 다리는 작은 전기 장치, 핸드레일, 기타 다른 테스트를 제외한 모든 절차를 거쳐 거의 완공 상태에 있음. 툴리컴 크로싱은 기존 다리와 달리 미적으로 우수하고 보행자·자전거 이용자가 거부감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 자전거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 통행이 편하도록 하고, 자전거 감지 센서를 이용해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
 -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분리해 각각 14피트(약 4m) 너비로 설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였음.

- 장애가 있는 보행자들이 다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도를 최대 5% 미만으로 건설하여 '미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 정해놓은 기준치를 만족시킴.
- 전망대와 정자(belvederes)를 설치해,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경관을 관람하고 다른 보행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
- 다리 인근의 오레곤 주립대학교와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와 연계해서, 자전거를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을 장려함.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8월부터 이 다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9월 개통과 더불어 7.3마일(약 11,750m)의 MAX 경량전철이 이 다리를 이용할 예정임. 지난 3월부터 경량전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급행버스 시스템(Bus Rapid Transit, BRT)도 이 다리를 노선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음. 이 다리는 결국 다수단(multi-mode)으로 통행 가능한 다리가 완공되는 것을 의미함.

<http://trimet.org/pm/construction/bridg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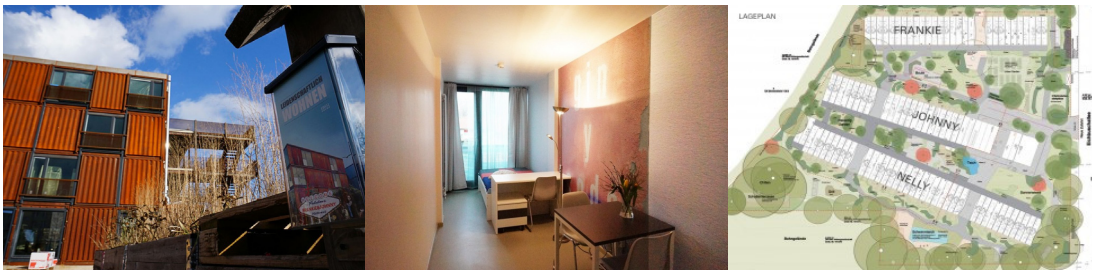
<http://www.citylab.com/design/2015/03/a-private-tour-of-portlands-forthcoming-car-free-bridge/388212/>

도시계획·주택

중고 화물컨테이너 411개로 조립한 기숙사단지 오픈

독일 베를린시 / 도시계획·주택

- 베를린시의 개인 투자가가 중고 화물 컨테이너를 활용한 기숙사 단지를 건설하면서 시가 해결하지 못한 기숙사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함.
- 베를린시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기숙사 상황이 좋지 못한 도시임. 현재 베를린시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16만 명이며, 시가 운영 중인 기숙사는 34곳뿐으로 방은 9,500개에 불과함. 기숙사의 한 달 방값이 140~285유로(약 16만~33만 원)인데 반해 현재 주택시장에서 거래되는 방 한 칸의 월세는 350~400유로(약 41만~46만 원)임.
 - 베를린의 대학생 중 60%가 유학생으로, 이들은 바퓌그(BAföG : 연방교육 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대학생의 35%는 월 700유로(약 81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임.



건축비용 30% 싸고 공사기간도 절반 이상 단축

- 지난해 베를린시는 5,000개의 숙소를 위한 기숙사 추가건설 계획을 발표함. 그동안 시는 3곳의 도시에 기숙사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시 주택공사·대학생 후생복지 조합·부동산펀드 등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한 건의 프로젝트도 성사시키지 못한 상황이었음.

- 지난해 개인투자 프로젝트로 베를린 트렘토우-콰페니區에 새로운 형태의 사설 기숙사가 탄생함. 새로운 기숙사인 ‘프랭키&조니’는 411개의 중고 해상화물 컨테이너로 만들어짐. 건축비용도 약 1,300만 유로(약 151억 원)로 기존보다 30% 저렴하고, 공사 기간도 반 이상 단축됨.
 - 4층으로 되어 있는 3개의 기숙사 동은 235개의 싱글 아파트, 65개의 투룸, 11개의 쓰리룸 아파트로 구성됨.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전문기술자들이 컨테이너들을 조립하여 일반적인 건물처럼 흔들림 없이 땅에 단단히 고정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로부터 내구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음. 방음과 단열은 일반건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맞춤. 단지 내에는 난방과 전기생산을 위해 열병합 발전 시설을 설치함.
 - 기숙사의 외관은 중고 컨테이너 칠을 벗겨 내고 자연 녹이 슬게 해서 빈티지 느낌을 연출함. 녹은 벽체의 내구성을 강화시킴. 실내는 감각적인 색채와 디자인으로 꾸밈. 각 룸은 침실영역과 부엌, 목욕실과 기능적 가구들을 갖춘. 양 끝에는 채광을 위한 큰 창을 냄. 야외공간에는 세탁실, 카페, 파티룸 등 공동시설과 정원, 채소텃밭, 암벽 등반시설, 수영 연못과 선텐장과 그릴장을 마련함. 싱글 아파트의 가격은 모든 세금과 인터넷 비용을 포함해 월 389유로(약 45만 원)임.
- 컨테이너 기숙사는 암스테르담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로 실현된 적이 있으나 독일에서는 처음임. 많은 대학생이 컨테이너 기숙사를 환영하며 입주를 문의함. 컨테이너 기숙사가 아직까지 경험된 적이 없는 프로젝트이지만 시는 대학생들의 반응이 좋고, 청년들에게 창조적 발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주거공간에 대해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을 평가하며 기숙사의 대안적 형태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음.

<http://www.eba51.de/bauproje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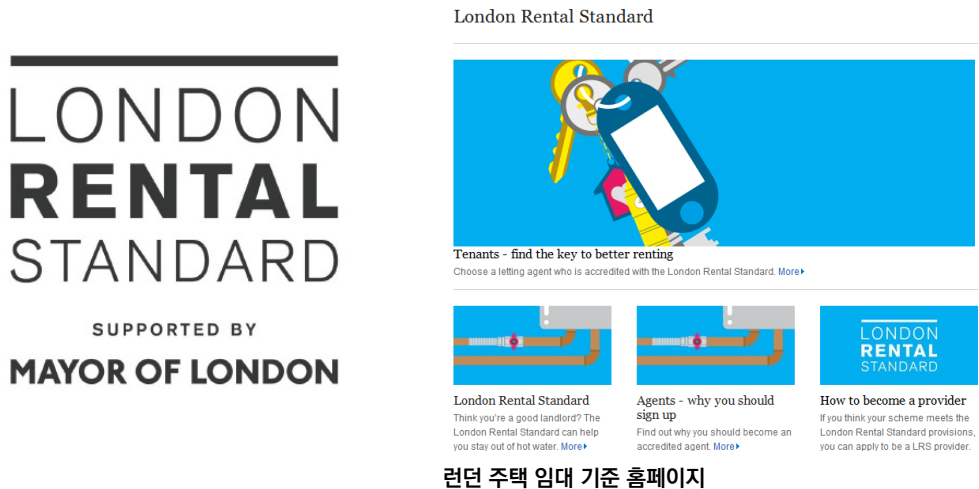
<http://www.tagesspiegel.de/berlin/studentenwohnheime-in-berlin-suchende-haben-derzeit-keine-chance/11020634.html>

<http://www.morgenpost.de/berlin-aktuell/article127625017/Berliner-Senat-verspricht-5000-neue-Studenten-Wohnheimplaetze.html>

민간 임대주택 질 향상 인증제도 시행

영국 런던市 / 도시계획·주택

- 런던市는 2014년 5월부터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체가 주택을 임대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인 ‘런던 주택임대 기준(London Rental Standard)’ 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 런던市에서 민간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주택 거주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런던시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현재 런던市 인구의 30%가 민간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임대가구의 비중이 자가 거주 가구의 비중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307개 중개업소 인증받아...11만여 주택 임대기준 충족

- 런던市는 단일화된 주택 임대 기준을 마련하여 임대인과 중개인의 의무를 명확히 알리고, 주택의 질과 임차인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런던 주택임대 기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

- 제도 시행 10개월 만인 2015년 3월 기준으로 307개의 부동산 중개업체가 이러한 인증을 받았으며, 총 11만 5천 호의 주택이 ‘런던 주택임대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아직 초기 단계이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런던 주택 임대 기준은 크게 임대인·관리인·중개인 인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런던시는 이러한 인증 기준마련과 제도 홍보를 담당하고 있음. 또한 8개의 공인 인증기관이 이와 관련된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임대인 인증에는 올바른 계약서 작성, 입주 보증금의 관리기관 위탁, 주택의 수리,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관리인 인증에는 임대인의 의무를 포함하여 관리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인증 받은 직원을 지점별로 1인 이상 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중개인 인증에는 중개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임대료와 안전점검 등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각종 분쟁에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이 제도에 대한 가입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임. 하지만 런던시는 임대인과 중개인이 해당 주택을 ‘런던 주택임대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홍보하면 임차인은 주택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인증 주택보다 경쟁우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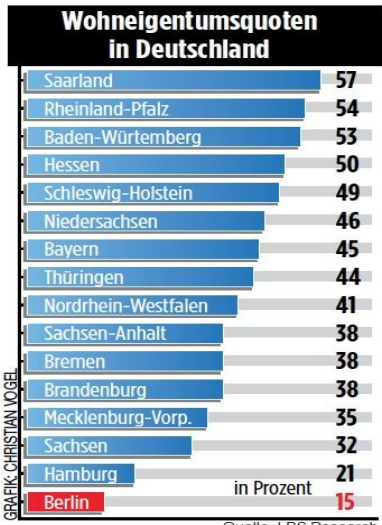
<https://www.london.gov.uk/media/mayor-press-releases/2015/03/mayor-s-landlord-accreditation-reaches-115000-london-homes>

<http://www.london.gov.uk/priorities/housing-land/renting-home/london-rental-stand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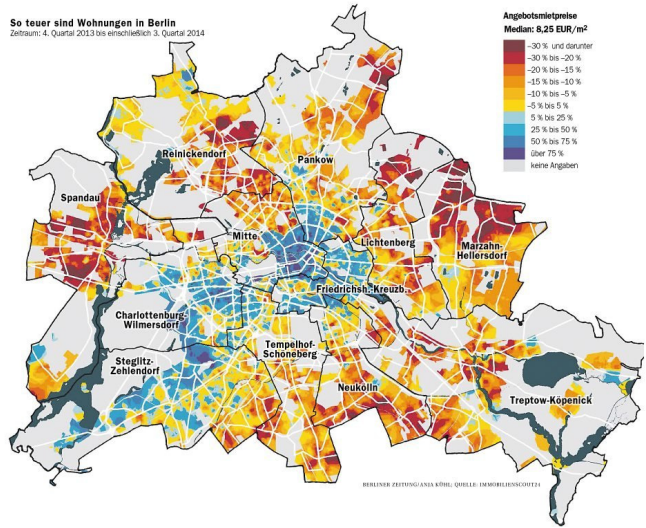
자녀양육 저소득가정 주택마련 지원사업 시행

독일 베를린市 / 도시계획·주택

- 베를린市는 베를린 투자은행과 공동으로 자기 재산을 만들 여력이 없는 저소득 가정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주택마련을 돕는 지원 사업을 시행함. ‘가족주택 마련 대출(IBB Familienbaudarlehen)’ 사업은 주택시장 안정과 가족 우호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임.



독일의 자가주택 비율



베를린 집세 분포도

자기 투자금 15%만 출자하면 집 사거나 신축 가능

- 현재 베를린에서는 7명 중 1명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음. 이것은 독일 전체의 자가주택 소유율 50%에 비교할 때 아주 낮은 상태임. 게다가 주택건축비는 계속 오르고 있음. 은행도 세계 재정위기 때문에 자가주택 건설에서 개인이 출자해야 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놓은 상태임. 저소득 가정이 자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음.
- 그 때문에 베를린 시의회는 가족주택마련 대출사업을 결의하게 됨. 이로써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적은 수입과 적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유래 없는 낮은 이자로 주택을 구입

할 수 있는 길이 열림. 집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베를린 주택시장에서 자기주택을 갖게 하는 것은 집세 상승에 맞서는 방법이며, 무엇보다 개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

-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가족은 은행이 요구하는 자기 투자금 30% 중 15%만 출자하면 집을 구하거나 지을 수 있게 됨. 나머지는 베를린 투자은행이 지원함.
 -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오직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어야 하며, 구입하는 주택이 반드시 완공된 신축주택이거나 스스로 신축하는 자가 주택이어야 함.
 - 가족 수입의 상한선은 베를린 사회주택(Berliner Wohnberechtigungsschein) 입주자격보다 약 30% 높음. 그래서 3인 가족의 경우 연 실수입 약 4만 유로(약 4,700만 원), 4인 가족의 경우 4만 9,000 유로(약 5,7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가지는 가족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베를린 투자은행은 이 사업을 위해 매년 500만 유로(약 60억 원)를 풀게 됨. 사업은 4월 말에 시작됨.

<http://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5/pressemitteilung.280314.php>

<http://www.bz-berlin.de/berlin/senat-unterstuetzt-familien-beim-wohnungskauf>

카이로 동쪽에 '인구 500만 수용' 신도시 건설

이집트 카이로市 / 도시계획·주택

- 이집트 주택건설부는 수도 카이로市 동쪽에 새로운 행정 및 경제 수도를 건설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함. 카이로의 인구과밀을 해결하고 이집트의 새로운 경제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서 신도시 프로젝트가 계획됨.
-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집이 높은 도시 중의 하나인 카이로에는 약 1,9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2050년까지 인구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수도 인구과밀 해소·이집트 경제도약 '두 토끼 잡기'

- 이집트 주택건설부는 3월 13일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세계경제회의에서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소개함.
 - 신도시의 위치는 카이로 도심에서 동쪽으로 45km 떨어진 나일강변으로 수에즈 운하와도 80km 내에 연결되는 위치임. 면적은 약 700km², 인구 5백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건설될 계획임. 도시는 1만 km의 화려한 대로와 가로수길과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여 보행자 친화적 도시로서 구상됨.
 - 도시 중심에는 지상 200m의 거대한 오벨리스크 형태의 초고층 건물이 건설됨. 4만 개의 호텔 방을 추가로 건설해 관광객을 확대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 17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임.

- 인구 500만 명을 위해 21개의 주택단지가 건설되고 유치원 700개와 종교건물 1,250개가 들어서게 됨.
 - 4km²의 부지에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보다 4배 큰 놀이공원 조성사업도 포함되고 국제공항도 건설됨. 현대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수도 카이로와는 밀접히 연결됨.
 - 이집트 정부는 이 도시를 울창한 공원과 호수, 산책로와 카페, 전 세계 도시의 최고의 것들을 한곳에 모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임. 그럼에도 도시의 외관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옛 카이로의 모습을 회상시키는 이미지로 조성됨.
- 신도시 완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2년임.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앞으로 5년에서 7년 안에 의회와 대통령궁, 각 정부부처와 외국대사관들을 먼저 카이로에서 신도시로 이전한다는 계획임.
- 이를 위해서만 약 450억 달러(약 49조 원)가 소요될 것이고 신도시 전체 건설 비용으로는 약 750억~800억 달러(약 81조~87조 원)가 들 것으로 예상함.
- 이집트 정부는 신도시 프로젝트를 무라바크 정권붕괴 이후의 정치적 불안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전망함. 이번 경제회의에서 아랍 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의 투자를 얻어냈으며 영국과 미국도 투자계획을 밝힘. 도시 건설사업의 대부분은 주로 아랍 에미레이트의 기업들이 수주할 것으로 보임.

<http://www.welt.de/wirtschaft/article138409324/New-Kairo-Aegypten-plant-eine-neue-Hauptstadt.html>

<http://www.tagesschau.de/ausland/aegypten-neue-hauptstadt-105.html>